

2021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숙의)토론

오픈 레이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고양시 청소년 시민,
함께 모여 환경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다.

목차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고양시 청소년 시민,
함께 모여 환경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다.

하나. 시작 풀어놓기	04
둘. 고민 모아보기	07
셋. 함께 맞대기 [오픈테이블] 토론회 준비	09
넷. 공유하기 [오픈테이블] 토론회 운영	10
다섯. 일상에서 실천하기	18
여섯.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34

청소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1월 개관한 고양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뛰어 다니며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즐거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비전과 핵심가치

미션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재단



비전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존중

행복

성장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청소년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주도의
활동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지역협력
경영시스템 구축

하나 시작_ 풀어내기

환경을 주제로 고양시 청소년들이
토론회 [오픈테이블]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모였다.

6~7월 2차에 걸쳐
청소년패널 구성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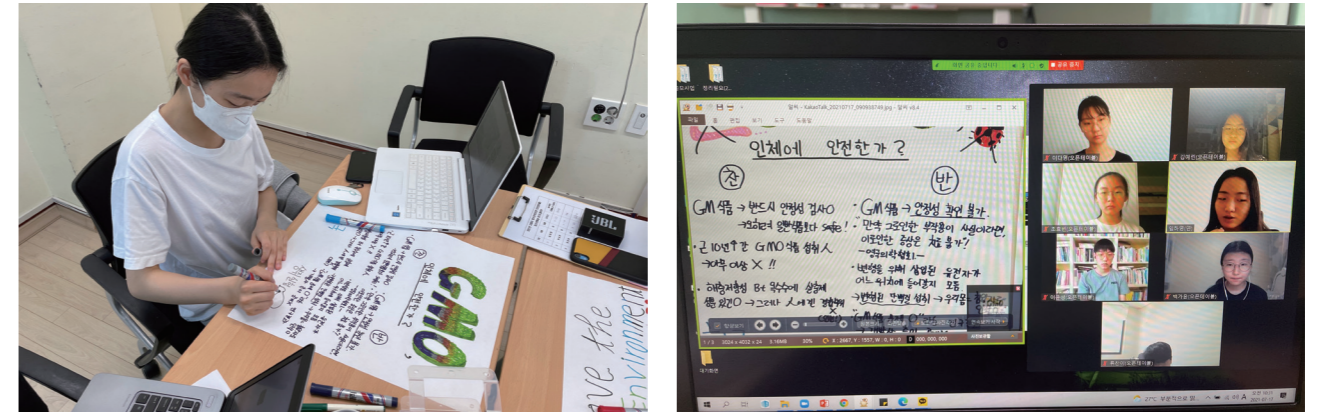
인원은 총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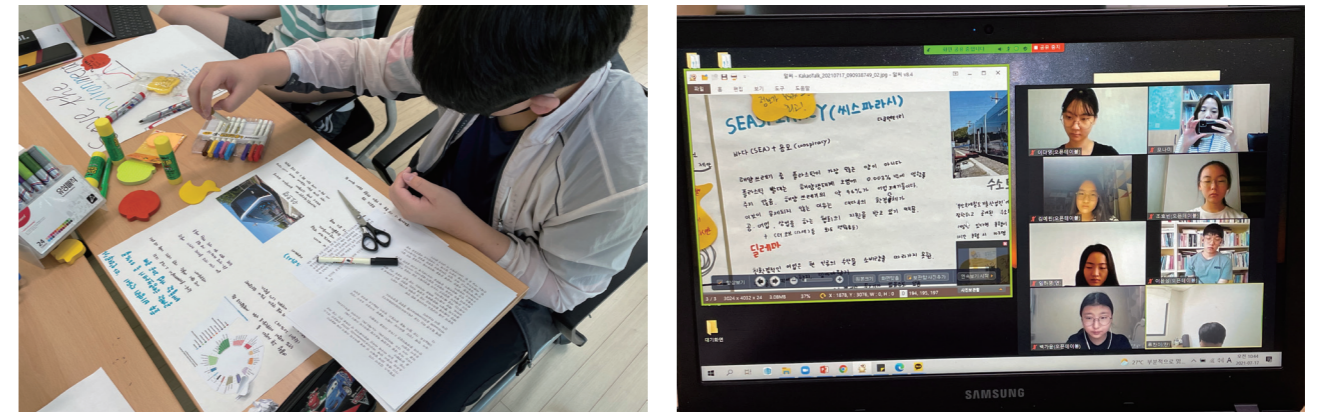
비대면 인터뷰를 시작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청소년 패널들이 관심 있는 환경이슈에
관하여 풀어놓으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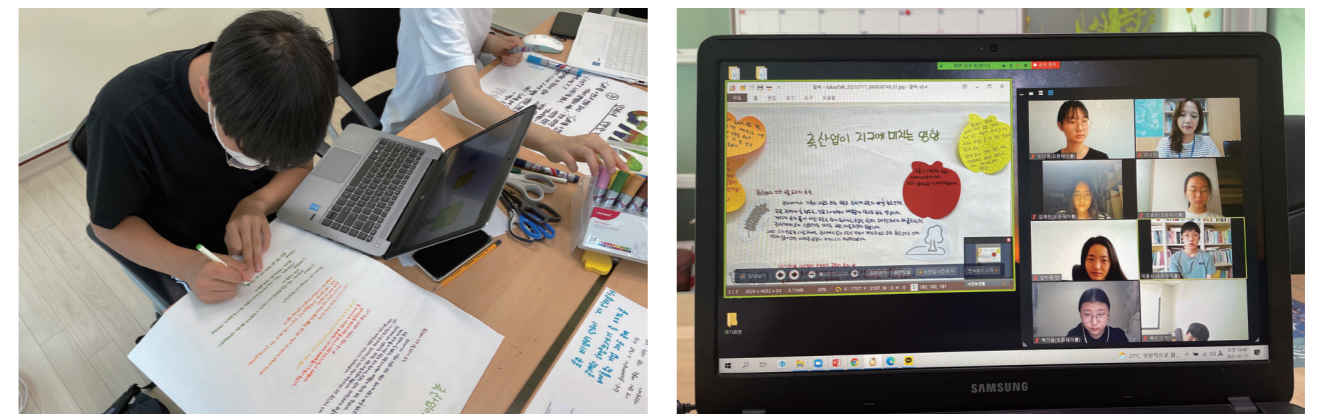
GMO 인체에 안전한가?



해양쓰레기 문제 : 씨스파라시 - 바다(Sea) + 음모(Conspiracy)



축산업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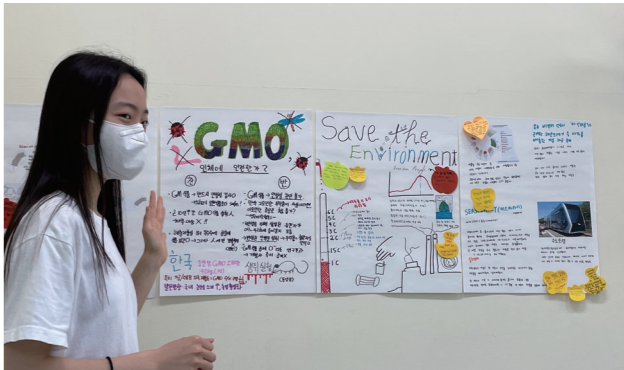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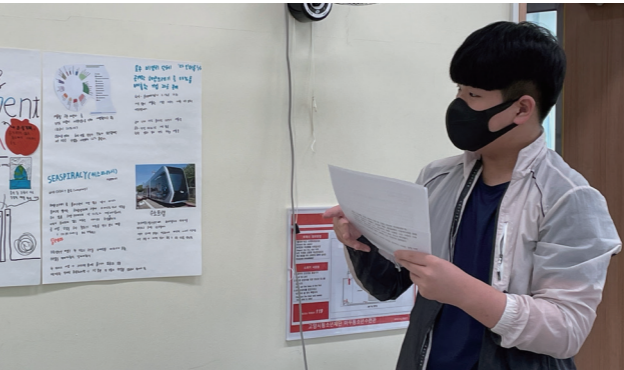
둘 고민 모아보기

[오픈테이블]은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환경문제 관심유발 #청소년 토론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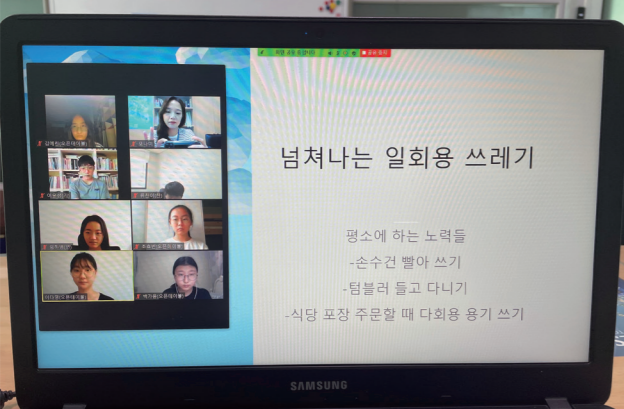
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시작 전 함께 의견을 모아 선정해야 하는 것이 2가지 주어졌다.

첫째, '토론'을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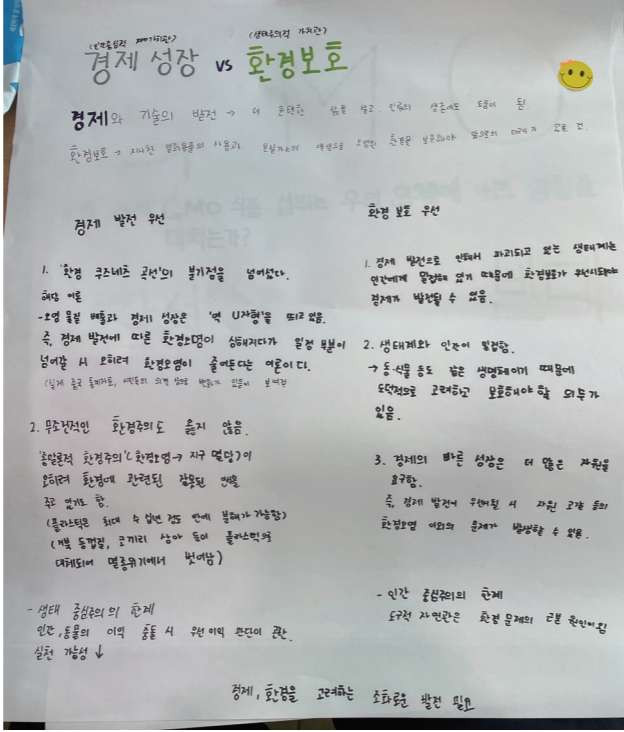


#주제 선정
일회용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인식개선 VS 강력한 규제
무엇이 우선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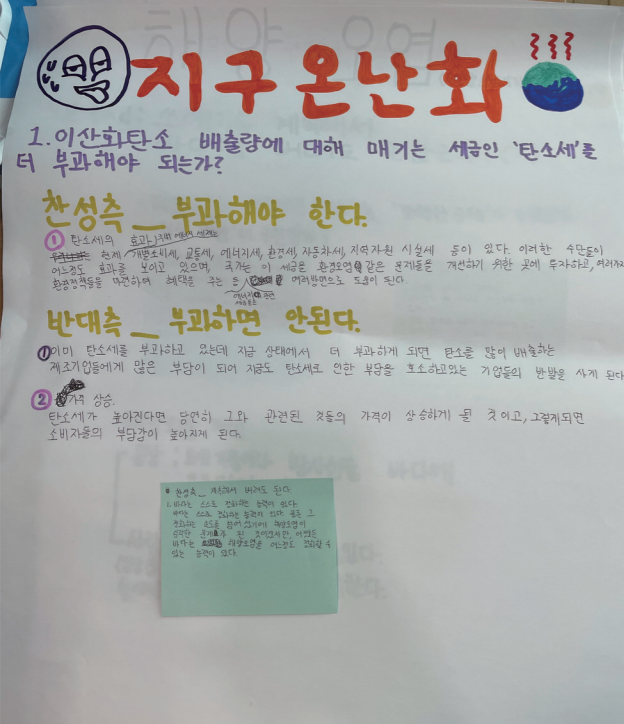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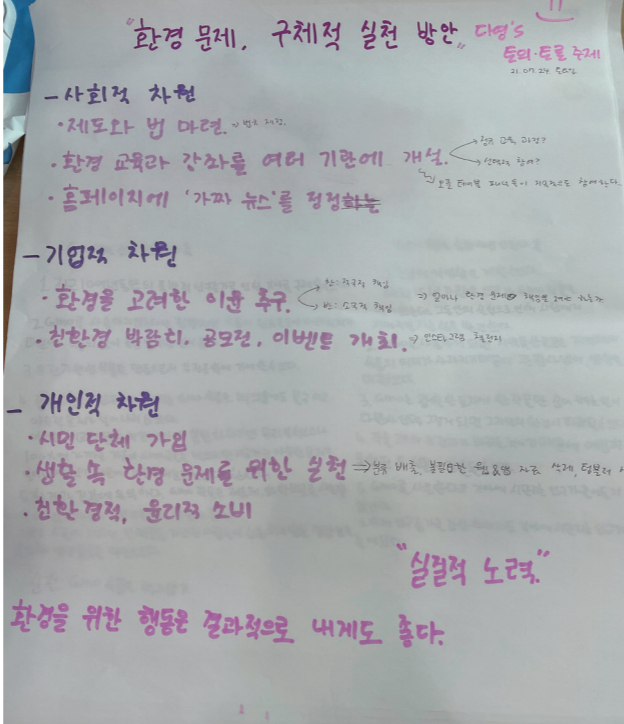
경제성장 VS 환경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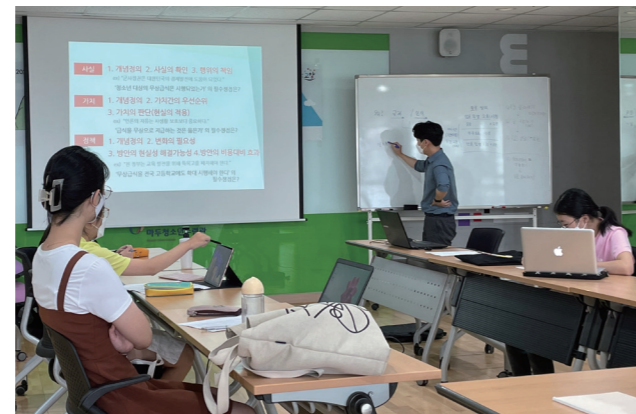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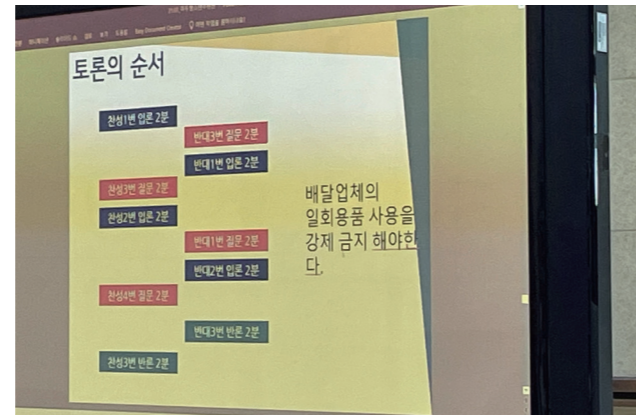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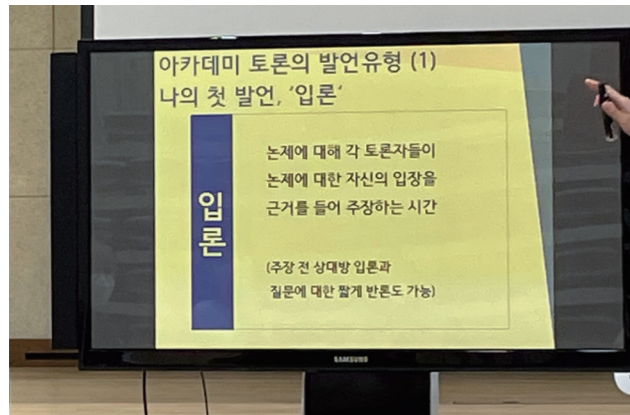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탄소세 부과



환경문제, 구체적 실천 방안- 사회적/기업적/개인적 차원



둘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방법' 선정하기



#토론 방법 선정 + 전문 토론교육

아카데미 토론

정해진 형식과 규칙, 그리고 엄격한 시간제한 내에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 찬반 양측 토론자들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하며 진행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교환을 배우기 위한 교육목적의 토론

셋 함께 맞대기_ [오픈테이블] 토론회 준비

강력한 규제 팀과 인식개선 팀
2팀으로 나뉘어져 토론회 준비를 시작하였다.

'강력한 규제'팀 : 이다영, 조효빈, 김예린
'인식 개선'팀 : 임하영, 류찬이, 이윤성, 백기운



함께 영상을 보면서 토론회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하고,



각 팀별로 입론-반론 역할을 나누어 준비해야하는 자료들을 분담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면-비대면으로 수집하고 작성한
토론회 자료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수정하였다.

넷 공유하기_ [오픈테이블] 토론회 운영

두-둥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청중들 앞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토론문화
[오픈테이블] 토론회 당일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토론회 준비 완료!



오늘 진행되는 [오픈테이블]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전략 실행과제인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실천하고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환경보존' 목표의 달성에
고양시 청소년이 함께 동참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담당자의 멘트와 함께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돈, 인력, 시간 같은 자원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토론회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일회용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인식개선 vs 강력한 규제.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인식개선 팀] 첫 번째 입론자 백가운

'인식'이란 사람들의 전반적인 편견을 말하며, '개선'은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 과정.
인식개선의 방법으로는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챌린지' 참여

1. 첫 번째 주장

인식개선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고, 그 행동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Re bottle set 디자인 전략 : 생수병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인데, 이를 활용하면, 어느 다용도 컵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음.

2. 두 번째 주장

규제는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인식개선은 범위에 제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

규제는 처벌과 벌금 등으로 인해, 이는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 구성원에게 불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기 어려움.



[강력한 규제 팀] 첫 번째 입론자 조효빈

1. 첫 번째 주장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개인의 노력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두 번째 주장

이미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되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린피스의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주요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을 대다수의 국민은 '알고 있다'라고 답함.
또한 현재 환경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함.

3. 세 번째 주장

규제가 일상으로 스며들면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규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 이 규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규제를 지켜나가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됨.



[인식개선팀] 두번째 입론자 임하영

'인식'이란 사람들의 전반적인 편견을 말하며, '개선'은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 과정.
인식개선의 방법으로는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챌린지' 참여

1. 첫 번째 주장

강력한 규제가 일회용품 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다.

녹색 산업 연구소의 '플라스틱 산업의 관성과 폐해'라는 글을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 생산과 폐기에 대한 인프라가 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거주지에 불평등하게 존재함.

2. 두 번째 주장

인식개선이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에 도움을 준다.

최근 8월 5일 SK 케미칼이 다 쓴 제주 삼다수 생수병으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기사를 낸 이후 주식 가격 상승을 경험한 것을 들 수 있음. SK케미칼 주식은 7월 후반에 23만원 대까지 그 가격이 떨어지다가 기사가 나오고 바로 다음날인 8월 6일에 30만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처럼 단 일주일 만에 주식의 30%가 상승했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시장가치가 30% 올랐다고도 볼 수 있음.

3. 세 번째 주장

강력한 규제보다는 인식개선이 윤리적으로 더욱 타당하며,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방식이다.

필요 이상의 '강압성'이 있는 규제는, 사람들에게 반발심을 사게 되고 이는 결국 규제를 잘 따르지 않게 만들.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해당 규제를 계속 시행한다면 결국 그 규제의 '윤리적 타당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음.



[강력한 규제팀] 두 번째 입론자 김예린

1. 첫 번째 주장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즉각적이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

호주의 콜스베이에서는 2003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음. 규제한 지 1년이 지나자 이 마을에서만 35만개의 비닐봉지 사용이 줄어들었음. 규제를 적용한 뒤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

2. 두 번째 주장

규제 방안

선진국들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한 수준임. 이처럼 현재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은 매우 적음. 근본적인 문제, 즉 플라스틱 생산을 제제해서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야 함.

3. 세 번째 주장

일회용품 대체품 산업

강력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일회용품 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될 것임.

일회용 플라스틱이 규제되고, 대신에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제 산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 혹은 지원해준다면, 기업들은 곧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제 산업에 뛰어들게 될 것임.

[오픈테이블] 토론회가 끝난 후 함께 했던 청중들의 #다양한 이야기



환경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가는지에 대해 알았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관심이 2%도 없었는데, 알게 되니 방금 먹고 버리려던 쓰레기도 분리수거 했기 때문이에요.

▲ [오픈테이블] 청중 안*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진중하게 토론에 임하는 토론자들의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1시간 조금 넘는, 아주 약간의 시간만 토론자들을 봤지만 다들 평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토론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회에 임해주었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주제에 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오픈테이블] 청중 이*서

사회자와 함께 아카데미 토론 형식에 따라 토론이 진행된 점이 토론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좋았고, 또 토론자들이 질문이나 반박에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펼쳤던 것도 좋았습니다.

▲ [오픈테이블] 청중 김*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부분, 그리고 '환경'이라는 우리 사회의 떠오르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토론하는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 [오픈테이블] 청중 김*우

우선 비대면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참여한 청소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해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게 논리적으로 반론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론도 잘했고 청소년들이 유연하게 흐름을 이끌어 가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픈테이블] 청중 이*택

#[오픈테이블] 본 토론회 활동 후 성찰하기

#인상 깊었던 점/좋았던 점

- 토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 다른 참여자/지도자/전문가들과 꾸준히 상호작용이 잘 됐음.
- 상호 간에 피드백을 통해 자세가 성숙해졌음.
- 연령대가 다양해서 좋았다. 다양한 사람만 만난 것만으로도 좋았음.
-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음.
- 전문가의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자유토론 :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어서 너무 좋았음.
-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경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인상깊었음.
-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활동과정이 팀 협동이 잘 되어서 즐거웠음.
- 토론경험이 쌓였던 것이 좋았음.

#아쉬웠던 점

- 간식(환경을 생각하면서)을 먹을 때 최대한 일회용품 안 쓰고 싶지만, 한계가 있었음.
- 이면지를 활용하는 실천을 잘 하지 못했던 점.
- 비대면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어야 하는 점. 너무나너무너무 아쉬웠음.
- 개인적인 아쉬움. 토론에 임하면서 황설수설했던 점이 아쉬웠음.
- 마스크 쓰고 활동 했던 것. 밖에서 활동이 제한되었음.
- 음향환경 개선이 필요함.
-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준비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준비시간이 촉박했음. 토론회 준비시간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섯 일상에서 실천하기

토론 후 일상에서 실천하기.

토론을 통해서 되새기게 된 환경문제.
작지만 각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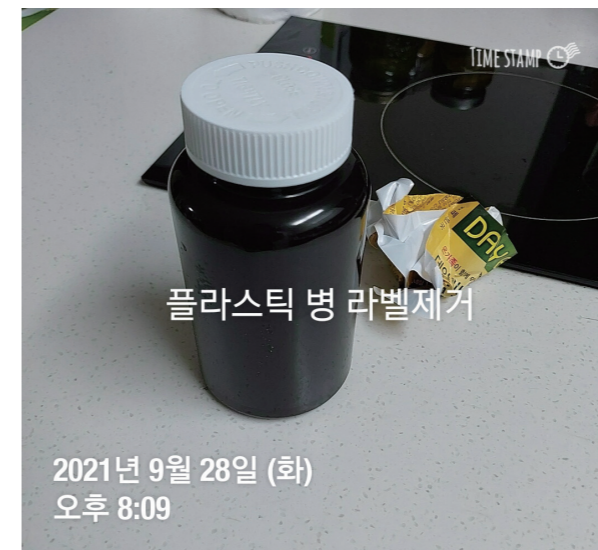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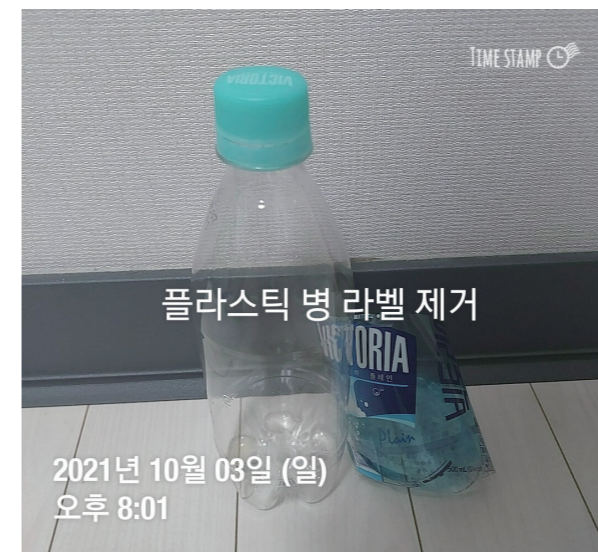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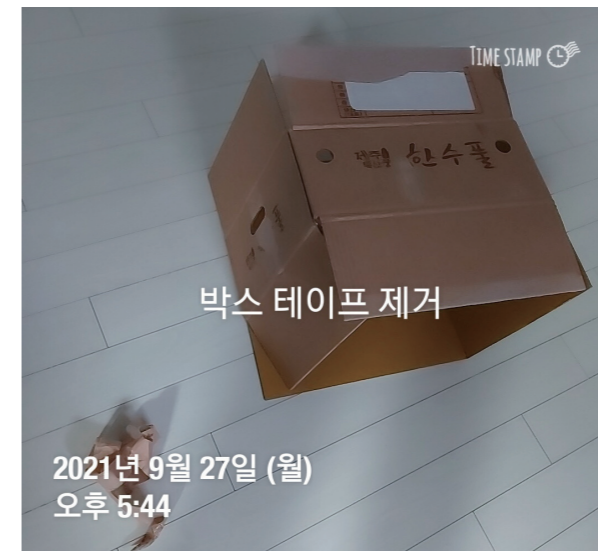
#1. 15세 청소년 패널, [류 찬이]의 지구를 위한 실천이야기

테이프가 붙어서 버려지는 박스,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병은 재활용이 어렵고,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이 재활용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체감해보며 환경을 위해 실천하기!

제로웨이스트 제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 가능하지만, 단점 또한 있기에 그를 보완하거나 앞으로는 꼭 사용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실천기간: 2021년 9월 15일 (수) ~ 10월 3일 (일)
2. 실천가: 류 찬이(본인), 엄마/아빠 총 3명
3. 활동기록

#1번 활동 : 올바른 분리배출



추석 연휴동안 집에 있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플라스틱 병 라벨 제거는 많지 않았을 것을 예상했지만 박스는 의외로 조금 적었다.

몇 번 놓친 박스들도 있었고, 주로 비닐에 담긴 택배들 또한 있었기에 박스의 양이 의외로 적었던 것 같다.

비닐에 담긴 택배는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접착제 부분과 주소가 붙은 종이 부분을 잘라내고 재활용으로 배출했다.

박스의 테이프를 제거하면서 의외로 쉬워서 굉장히 편했다.

박스를 개봉하면서 테이프의 단면이 약간 비껴나오는데, 이 부분을 잡고 쪽 뜯으면 박스의 종이 가 뜯겨 나오기는 한다면 테이프를 제거 후 박스를 버릴 수 있다.

플라스틱 병은 이번에 해보면서 새롭게 느낀 점인데, 일부 플라스틱 병은 라벨 제거가 쉽도록 한 부분을 잡고 쪽 뜯으면 접착제가 아예 안남도록 한 병들도 있었다.

앞으로 플라스틱 병 구매 시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이러한 병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서 그 제조사들이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이 많지는 않아도 생각날 때 한 번씩 저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꽤 부딪히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편했던 것 같다.

다만 택배 중에서 비닐에 싸여 오는 일부 택배들은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플라스틱은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종류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부 또는 플라스틱 생산업체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2번 활동 : 제로웨이스트 제품 사용하고 기록하기



* 구매처 : 지구샵
* 고체치약 사용법 : 치약 한 알을 입에 물고 씹으면 거품이 나는데 그때부터 칫솔로 이를 닦으면 된다.

[나 - 류 찬이]

고체치약: 한 번에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 사용할 때 빼고는 크게 이상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다.

칫솔: 칫솔모가 있는 칫솔의 머리 부분이 너무 커서 양치 시 입안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다.

[아빠]

고체치약: 일반 치약보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칫솔: 칫솔모 사이 간격이 넓어서 칫솔로서의 성능이 다소 낮았다.

[엄마]

고체치약: 크기가 다소 작아서 어린 아이들은 삼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이외에는 일반 치약보다 나은 점도 있어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

칫솔: 칫솔모가 너무 약해서 사용기간이 짧다. 대나무의 특성상 물과 오랫동안 접촉 시 까매지는데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튜브치약은 분리배출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기에,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을 위해 고체치약을 권유한다.

〈치약은 부분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재질에 맞게 재활용이 가능〉

① 치약 캡(=뚜껑) : 치약 캡은 분리하여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② 치약 튜브(=몸통) : 치약 튜브는 내부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재질에 맞게 배출한다.

* 단, 치약 속 내용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한 경우: 치약 뚜껑은 플라스틱, 튜브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2. 15세 청소년 패널, [이윤성]의 지구를 위한 실천이야기

1. 실천기간: 2021년 9월 19일 (일) ~ 10월 19일 (화)
2. 실천가: 이윤성(본인/기록자), 안민서, 배서우, 이민애, 한이해찬, 김민성 (모두 15세)
3. 활동기록

#1 시작 전

원래는 1달간 3일주기로 올리는 것이었는데 멤버 수정 등으로 인해 대부분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해서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수정.

통상적으로는 3일에 한번 씩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해서 올림. (약간씩 밀리거나 해서 예상보다는 적을 듯)

지목하기로 한 것은 현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공개 계정이거나 아는 사람들끼리만 팔로우를 한 상태라

다른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힘들 듯.



1124q03160316님의 9명이 좋아합니다
meta.mong33 녹차가 독저실 다스으면서 사다준 음료 양거나 사담리에서 아직 환진 모르겠는데 어렸든 진짜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하나씩 진짜 담아준다고 한다 나는 카페에서 텀블러에 달라고 한적이 없어 궁금하다. 그래도... 가용이면 맛있는거면...



moongibae, 1024님의 4명이 좋아합니다
meta.mong33 제로웨이스트 텀블러로 인해 아련에 사용하게 된 고체치약입니다. 원래 텀블러 텀블러도 양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걸로 기대했는데, 텀블러 사용해야해서 그것은 아쉽지만, 텀블러는 사용하지않아도 돼서 그 부분은 좋은것 같습니다.
#zerowastechallenge #제로웨이스트 텀블러지 #고체치약



1124q03160316님의 14명이 좋아합니다
mery.go_round... 5871 양말쪽으로 만든 냄비받침 양말 공장에서 양말 만들고 자르는 위에(?)부분으로 만든건데 요즘은 저질로 가방도 만들고 그러던데. 이거 제로웨이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땀지 제로웨이스트인가 같아서... (자 냄비받침 만들어 온거긴 한데...)
#zerowaste #제로웨이스트 #zerowastechallenge #제로웨이스트 텀블러지 #양말쪽받침

#2. 9월 19일 일요일 첫 번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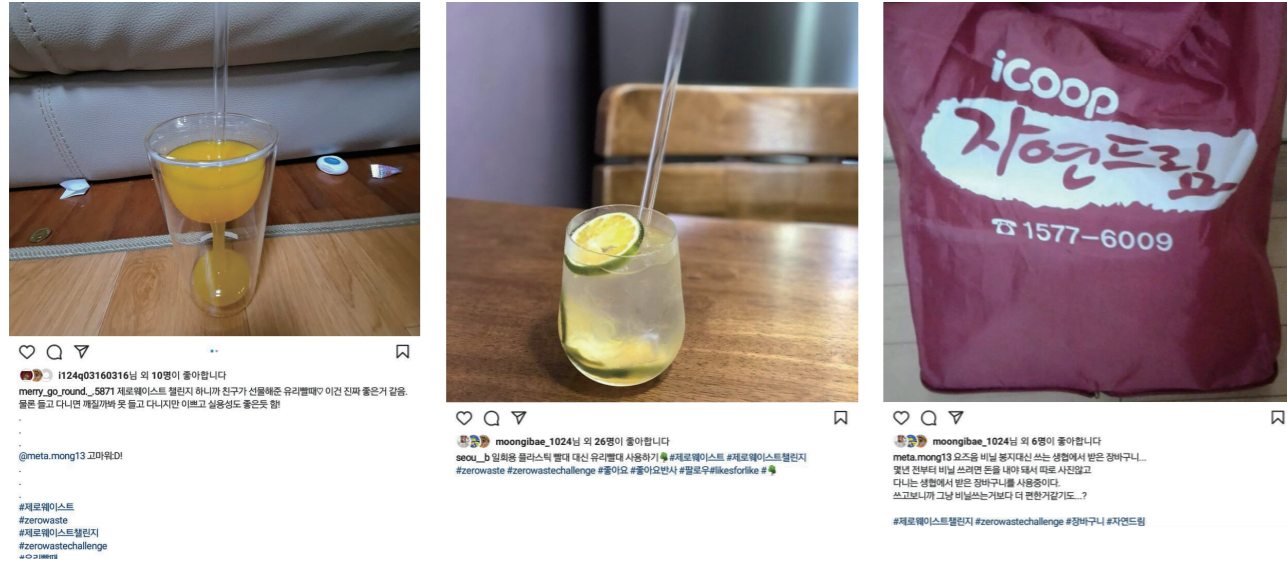
인스타 계정 만드는 데만 2일이 걸렸다.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주기로 올리는데 멤버가 아직까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가족들이 고체치약을 궁금해서 써봤는데... 솔직히 기대와는 달랐다. 인스타에도 써놓았지만 뭔가 껌처럼 씹으면 양치 질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허황된 기대였을까) 그런데 어쨌든 칫솔을 써야한다고 하면, 애초에 치약&칫솔을 묶음판매를 한다던지.. 단일 제품만 쓰면 결국 플라스틱 칫솔을 써야 되니까 큰 의미가 있나 싶었다. 어쨌든 같이 할 사람 모집한다고 공지했고 한다고 한 사람도 몇 명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3. 9월 22일 수요일 두 번째 기록

...나는 소셜미디어랑 안 맞는 것 같다. 볼 것도 없고 올릴 것도 없는데 (비공이여서 그렇겠지만)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사실 지금은 챌린지를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사주신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계속 사용해보면서 내가 썼을 때는 어떨다...라는 형식의 글로 쓰고 있다.(리뷰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몇 번 정도 더 한다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멤버얘기를 하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한 달이 남았을 텐데, (10월 23일로 기억함)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시작 및 확정된 애들은 총 3명이다. 2명이 더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빠져서, 친한 친구들한테 말해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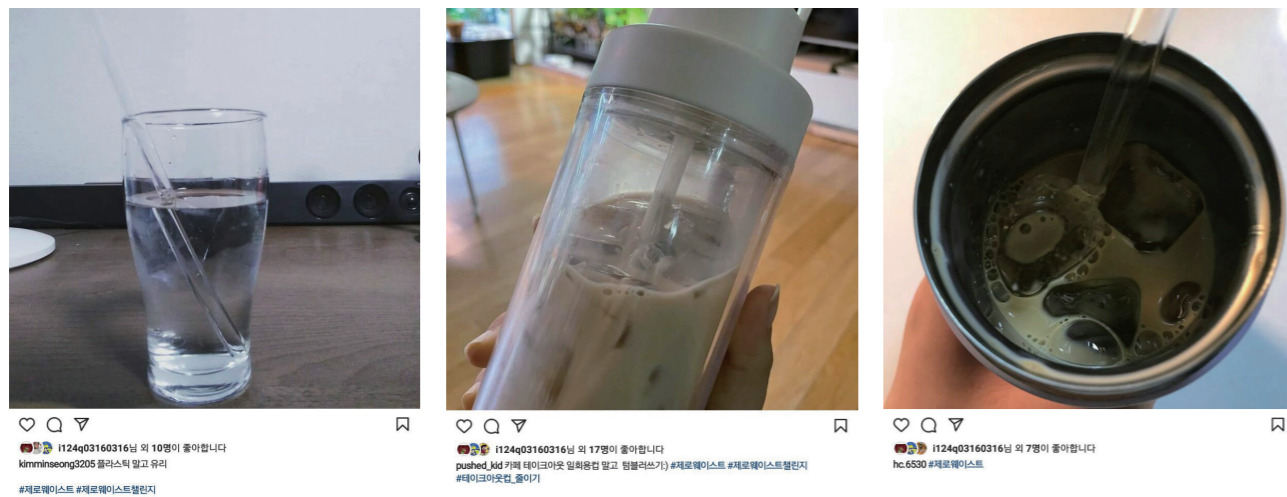
#4. 9월 26일 일요일 세 번째 기록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에 다녀왔는데 하필 폰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찍지를 못했다. 할 수 없이 집을 와서 텀블러를 찍었다...
 뭔가 유리빨대가 있으면 음료 마시는 걸 인증하기가 편할 텐데 유리빨대는 참여확정 된 애들에게 전부 줘서 유리빨대는 없다.
 어쨌든 함께 하기로 한 친구들은 (아마) 보통은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올려주고 있다. 그리고 남은 두명이 확정이 됐다.
 아마 그 친구들도 2~3일 내로 첫 인증을 올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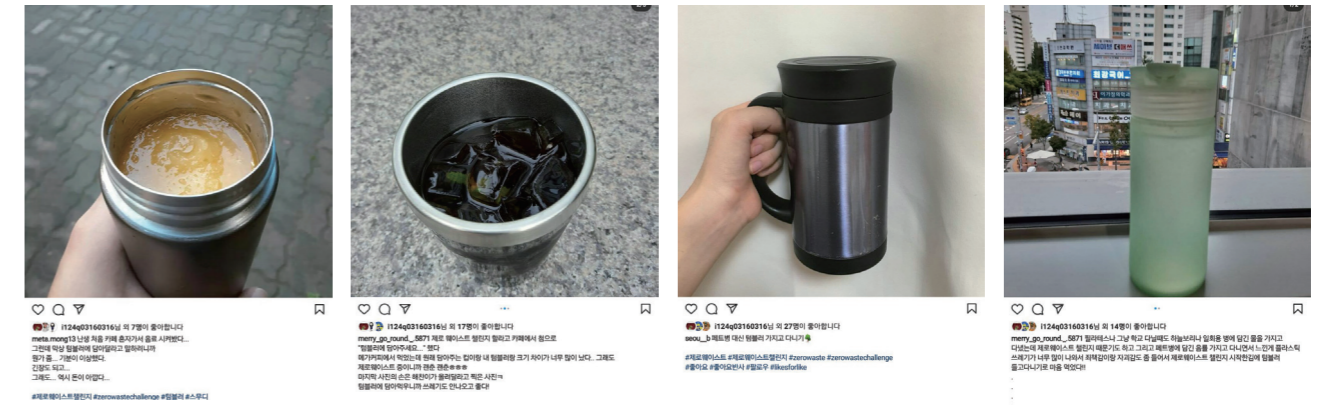
#5. 9월 29일 수요일 네 번째 기록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3년째 쓰고 있는 자연드림(생협) 장바구니가 생각났다. 재질은 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4년 정도는 계속 써도 별 이상은 없으니 좋은 것 같다. 게다가 산 게 아니고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 더 제로웨이스트의 취지에 맞기도 하고. 새로 하게 된 친구들은 어제와 오늘 올렸다. (각각)
 솔직히 그 친구들도 소셜미디어를 잘 안 써서 뭘 올려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온다고들 말한다. 인스타그램 태그에 #제로웨이스트챌린지 또는 #zerowastechallenge 라고 검색해보니 뭔가 운동하는 사진밖에 없어 당황스러웠다. 아니면 리뷰(후기) 라던가!
 그래서 친구들이 제로웨이스트챌린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 지식백과에서 제로웨이스트챌린지의 정의를 찾아보기는 했고, 지식백과에는 어떻게 하라고는 나와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유리빨대를 구매한다든지 그런식으로 기준이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 없었다. (다섯 번째 기록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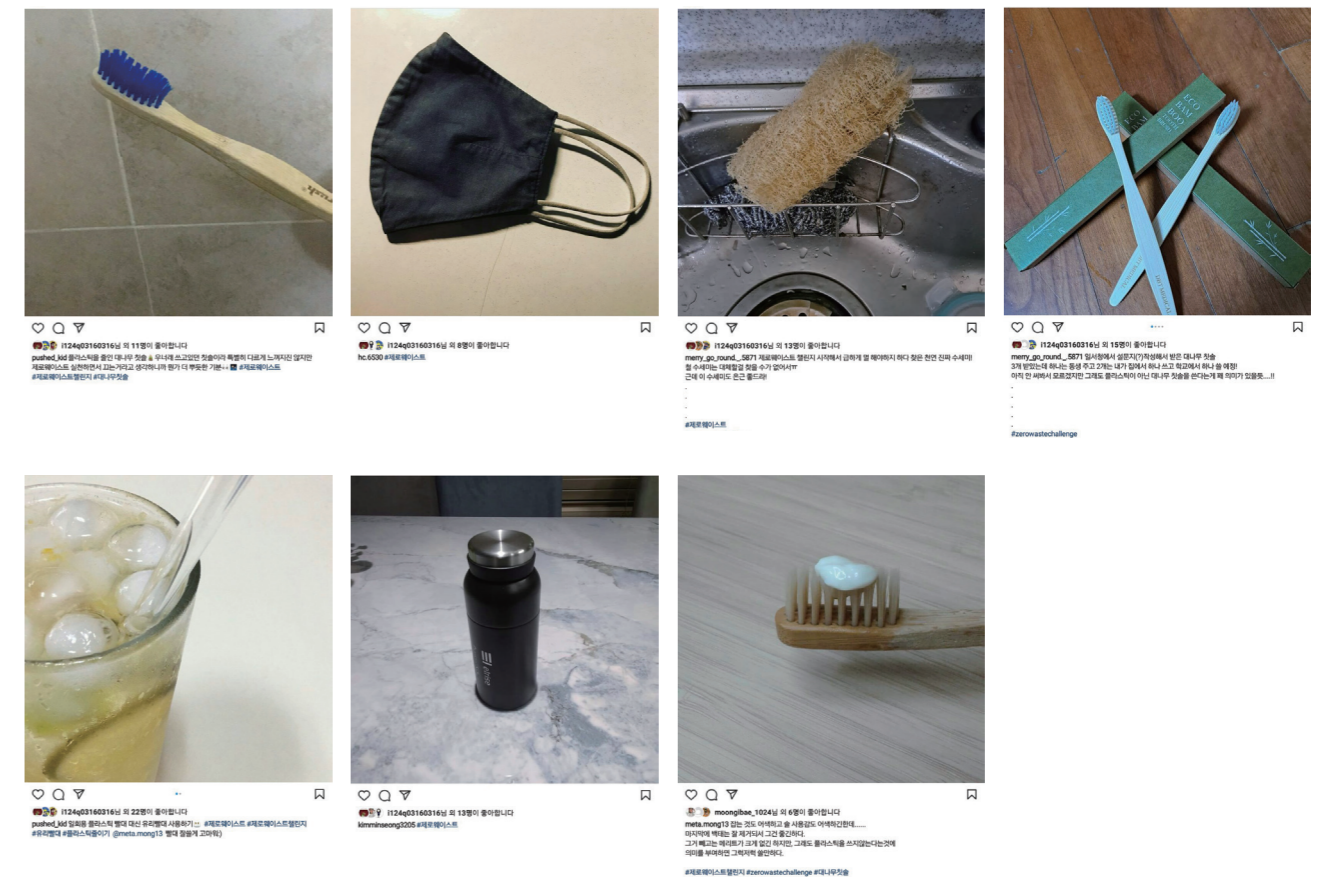
#6. 10월 5일 화요일 여섯 번째 기록

다른 친구들은 가끔씩 카페에 가서 텀블러라도 올리는데 나는 돈이 좀 아까워서 카페를 잘 안가서 텀블러를 활용할 기회가 딱히 없다.
 굳이 제로웨이스트를 하기 위해 카페를 가서 텀블러를 사용할 수는 있긴한데 차라리 밖에서 음료를 아예 안마시면 세제도 안 쓰니까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예 안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카페를 이용하려고 는 하지 않았다.(아직은)



#7. 10월 8일 금요일 일곱 번째 기록

오늘은 평생 동안 내 의지로 가본 적이 없는 카페에 혼자 가봤다.
 사실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뭘 할까 해서 가기는 했는데 생각하던 커피값이 아니었다.
 요새는 동네 커피집도 아메리카노 한잔에 3500원을 받는 걸까? 체인점이나 그런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다.
 원래는 녹차 라떼 같은 걸 마시려고 했는데 기왕 온 거 비싼 거 마셔보자 해서 스무디를 시켰다.



윤성이와 함께하는 환경실천가 이야기

안민서

환경문제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일회용품이 환경파괴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늦게 안 것 같긴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생태파괴와 동물들의 고통을 보며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파괴해야 멈출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하기 전의 나의 모습이 매우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만 편하자고 사용했던 일회용품들... 하지만 자각을 한 지금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일회용품을 줄이자...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내가 웃기긴 하다. 어쩌면 나는 실천할 용기가 없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민애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또 한 번 환경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한 환경에 좋은 쪽으로 소비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된 것 같다. 이러한 공식적인(?) 챌린지가 아니어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구를 더 건강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나 역시 챌린지가 아니어도 계속 환경을 위해 활동하려고 한다.

한이해찬

너무 소박하고 작은 일 같아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라는 태그를 붙이기가 민망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플라스틱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일회용품을 안 쓰니까 내가 뭔가 트렌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였다. 좋았다.

이윤성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보다는 이걸 함으로서 갖게 될 수 있는
 현재 환경상태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더 컸던 것 같다.
 솔직히 이걸 해서 실제적 효과가 뭐가 있을까?
 그래도 이걸 함으로서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활동할 가능성도 꽤 되니까...
 나도 그렇고 내 친구 몇 명도 그런 식으로 베테러리언이라던지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이러한 활동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는 것보다는 부가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도 제로웨이스트챌린지에 참가해준 애들이
 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3. 15세 청소년 패널, [김예린]의 지구를 위한 실천이야기

1. 실천일시: 2021년 9월 18일 (토) 10:00~13:00
2. 실천가: 김예린, 안수지, 한규민 (모두 14세)
3. 활동기록



김예린

사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느껴서 '쓰레기를 많이 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줍다보니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 주운 뒤의 쓰레기의 양이 꽤나 되어서 이 활동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저희가 다닌 곳들이 깨끗해 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를 보고 착한 일 한다며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쓰담달리기는 캠페인일 뿐! 이걸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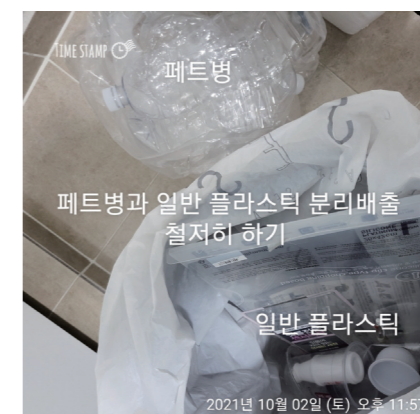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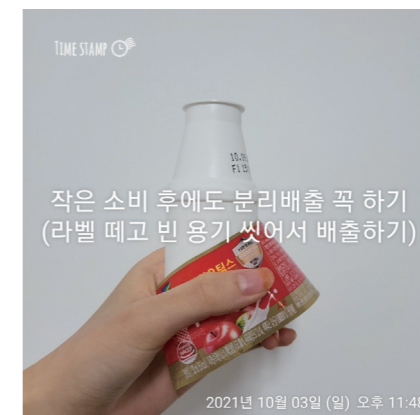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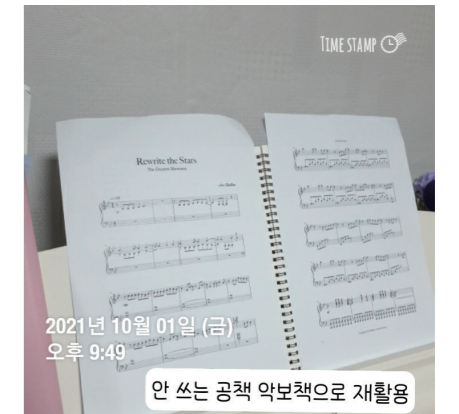
쓰담달리기를 하는데, 꽤나 재미있었고 보람이었어요.
 힘들어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줍고 줍고 또 주우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거 같아요!

한규민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주울까?' 생각도 들고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하기 싫어졌었는데 계속 줍다보니 주변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쓰레기봉투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고 보람찼고 주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알게 되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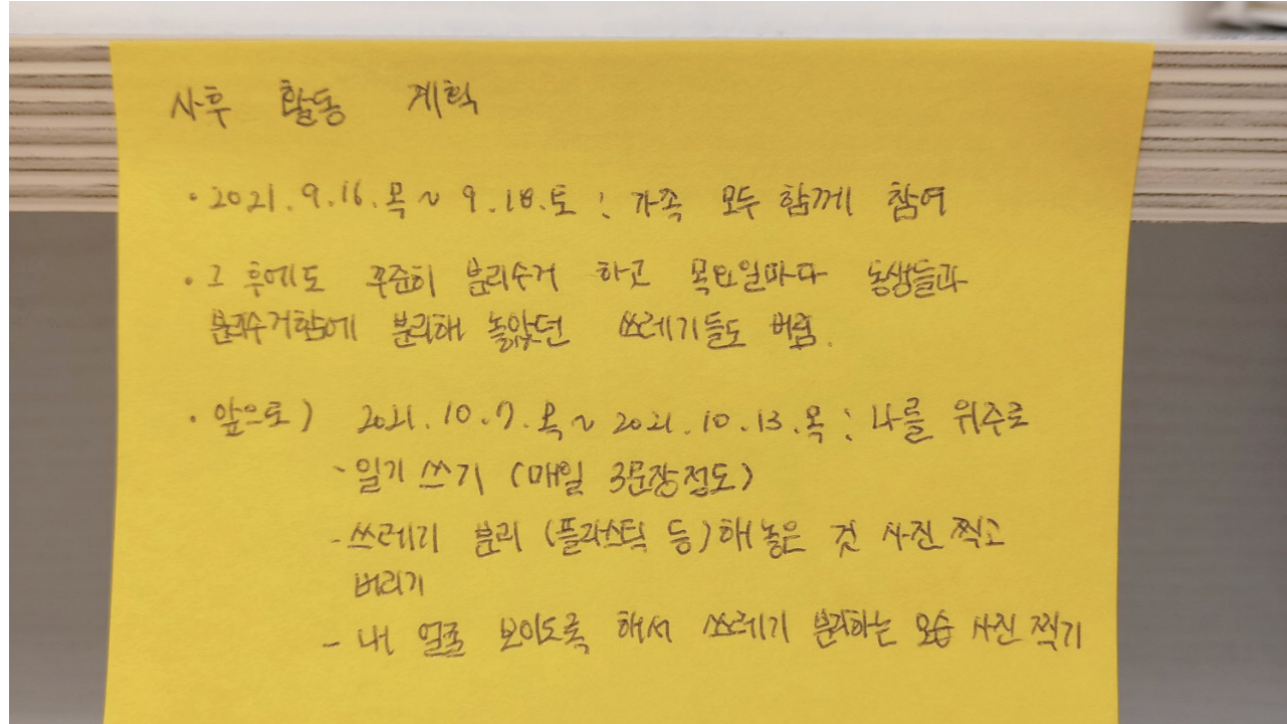
#4. 18세 청소년 패널, [이 다영]의 지구를 위한 실천이야기 <같이, 가치>

1. 실천기간: 2021년 9월 27일 (월) ~ 10월 3일 (일)
2. 실천가: 이다영, 우재경(모두 18세)
3. 활동기록



#5. 14세 청소년 패널, [조효빈]의 지구를 위한 실천이야기

1. 실천기간: 2021년 9월 16일 (목) ~ 10월 13일 (토)
2. 실천가: 조 효빈(14세)과 가족들
3. 활동기록



#1. 9월 15일 목요일 첫 번째 기록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로 일단은 18일 토요일까지 우리 가족 모두 분리수거 똑바로 하기 챌린지를 할 예정이다. 이사 오고 나서 분리수거를 똑바로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해야겠다:) 잘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겠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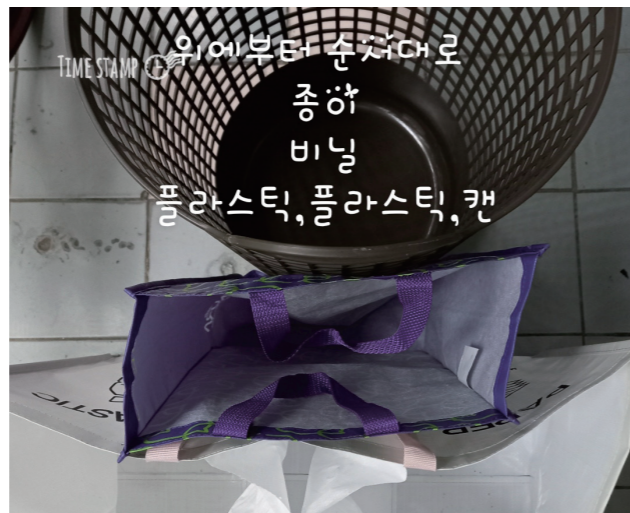
#2. 9월 16일 금요일 두 번째 기록

오늘 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렸다.

플라스틱 링 분리해서 버릴 때에는 현민이가 많이 해줬다. 워낙 손으로 하는 것을 잘해서 하나 빼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나와는 달리 빨리빨리 해줬다. 고마워♡

앞으로도 부탁해! 윤성이도 이 챌린지 참여하기로 해서 10시 좀 넘어서 나랑 현민, 현정, 윤성까지 모두 같이 쓰레기 버렸다.

모두 고마워!(생각보다 열심히 참여해주서)



#3. 9월 17일 토요일 세 번째 기록

역시 토요일이라 그런지 쓰레기양이 평소의 두 배인 것 같은 기분이다. 오늘도 한 곳에 모았다가 10시쯤에 한 번에 버렸는데 순식간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꽉 찼다. 오늘도 조현민이 링이랑 뚜껑 분리해줘서 나는 그것들 모아놓은 곳에 버리기만 했다. 아무튼, 수고했어!



#4. 9월 18일 일요일 네 번째 기록

오늘은 외할머니 집에 가서 버릴 쓰레기가 적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쓰레기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연장하고 싶긴 한데, 현민, 현정, 윤성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고 허락을 다시 받지도 않아서 그냥 오늘부로 끝내려고 한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



#5. 9월 30일 금요일 다섯 번째 기록

오늘도 분리수거 날!! 목요일은 스케줄이 조금 빡빡해서 아침 8시 30분에 학교 갔다가 오후 8시 30분쯤 돌아왔는데 분리수거를 버리고도 오늘 오후에 생긴 쓰레기들이 있어서 윤성이, 현정아랑 나가서 분리수거하고 왔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진도 찍었다.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10:04

#6. 10월 7일 목요일 여섯 번째 기록

오늘부터 다시 분리수거 시작이다!! 열심히 해야지~~ 우선 플라스틱이 많이 보여서 그것부터 현민이한테 링 분리해달라고 함. 그 다음에는 쓰레기통에 버림. 다음번에는 내가 한번 링 분리해볼까...? 계속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아무튼! 앞으로 화이팅!



2021년 10월 07일 (목) 오후 11:33



2021년 10월 07일 (목) 오후 11:35



2021년 10월 07일 (목) 오후 11:36

#7. 10월 8일 금요일 일곱 번째 기록

오늘은 수학교실에서 종이를 많이 써서 종이부터 버렸다. 페트병은 엄마가 이미 다 분리해서 버려놔서 내 쓰레기 말고는 버릴게 없었다. 종이 쓰레기 몇 개 버리는 것 정도?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하다보면 환경에게 덜 피해가 갈 수 있을까? 진짜 작은 일인데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환경에 조금이라도 덜 피해가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다. 화이팅!



2021년 10월 08일 (금) 오후 11:19



2021년 10월 09일 (토) 오후 11:18

#8. 10월 9일 토요일 여덟 번째 기록

오늘은 동생들이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페트병 쓰레기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분리했다. 참, 오늘은 내가 페트병 링을 분리했다. 2개중에 1개만 분리하긴 했지만 원래라면 안 했을 일이라고 생각하니 되게 부듯하다. 수고했어:)



2021년 10월 09일 (토) 오후 11:23

#9. 10월 10일 일요일 아홉 번째 기록

오늘도 언제나와 같이,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나가서 생활용품, 음식을 사서 그런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애들이랑 오랜만에 다 같이 할까 생각도 했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만 참여하라고 하면 싫어할까봐 그냥 나 혼자 했다. 다 한 후의 기분을 많이 정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분리수거를 다하고 보면 부듯해서 다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다.'아다:)



2021년 10월 10일 (일) 오후 11:41

#10. 10월 11일 월요일 열 번째 기록

내가 말했던가? 우리 아빠가 편의점 점주라고. 그래서 팔리지 않은 도시락 가끔 아빠가 들고 오는데 오늘이 그날이라서 플라스틱 버리는 곳이 편의점 도시락 통으로 가득 찼다. 아직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쓰레기 또한 작은 사이즈 박스들이 꽤 있어서 최대한 부피를 줄이며 종이 버리는 곳에 넣었다. 내가 쓰레기들을 분리하기 전에는 베란다가 더러웠는데 분리하니 더러운 정도는 아니라 기분이 좋았다.



2021년 10월 11일 (월) 오후 10:51

#11. 10월 12일 화요일 열한 번째 기록

오늘은 나가서 식재료들을 많이 사서 비닐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요즘은 나 때문에 종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온다. 종이 진짜 적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다. (환경아 미안해...) 불행 중 다행이랄까 오늘은 페트병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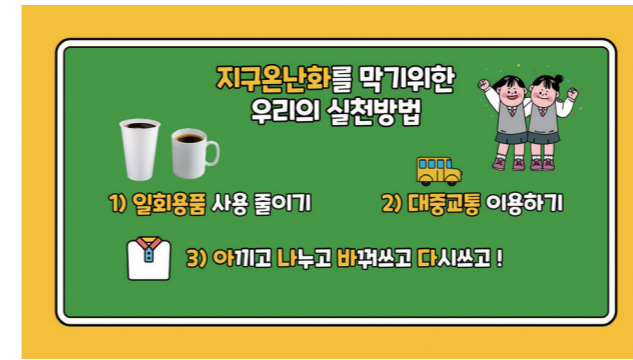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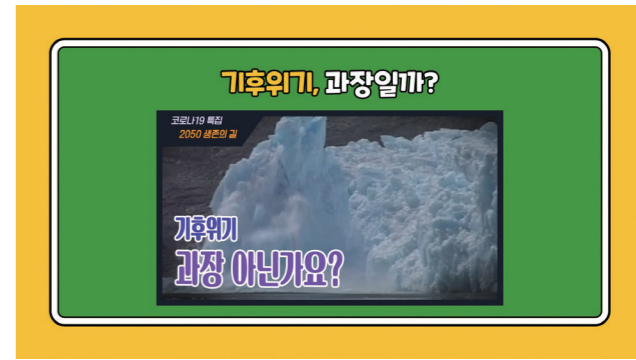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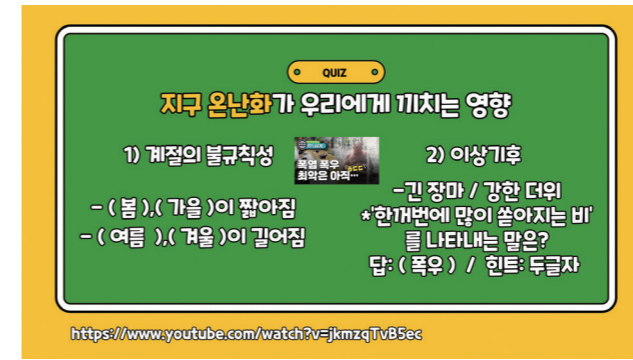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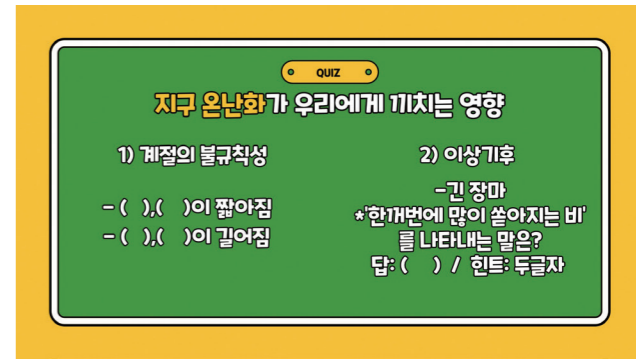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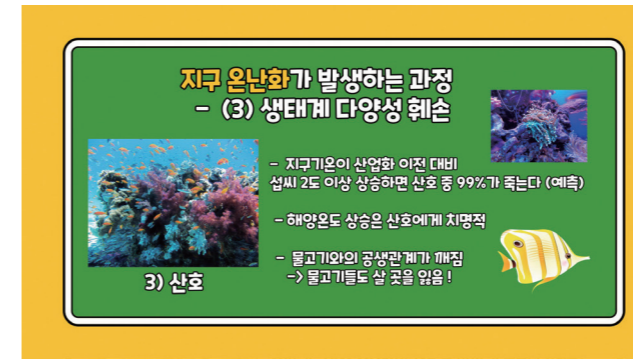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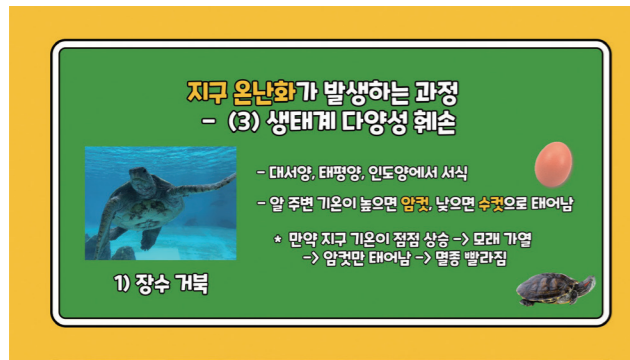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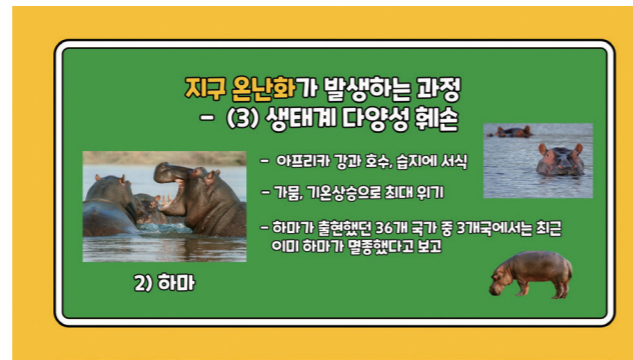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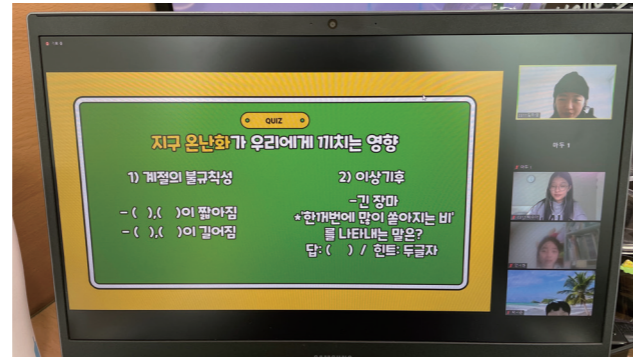


2021년 10월 12일 (화) 오후 11:14

지난번에는 가족과 함께 활동해서 잘 몰랐는데 혼자 분리수거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기록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일 것 같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야겠다. 한 주 동안 수고 했어!

#6. 18세 청소년 패널, [임 하영]의 지구를 위한 실천이야기

1. 실천기간: 2021년 11월 20일 (토)
2. 실천가: 임하영, 박수아 (모두 18세)
3. 활동기록



임 하영

스스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해보며 지구 온난화가 단순히 동식물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10대 초반의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대상에게의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조기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의 해결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박 수아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관련 이슈나 정보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도 고민하며 환경 보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좋아해서 이번 활동 자체를 즐기면서 준비하고 줌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비대면으로 활동한 게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여섯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이윤성

0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번째 활동 때에 환경 관련 자료 찾아와서 발표했었던 것. 아마 내가 대안학교에 다녀서 그런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정리도 안 되어있고 이해도 없는 상태로 그냥 찾은 자료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 발표하는 나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다.

02 내가 성장/변화한 점이 있다면?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활동은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친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도 행동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매사에 긴장하는 일은 없어진 것이 토론회를 하며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한다.

03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 활동으로 토론을 실제로 할 때 그동안 꽤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토론 중간 질문할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상 답변과는 다른 답이 나와서 마무리를 내가 말하고도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이상하게 했다. 나름 열심히 자료 찾아 보고 질문 작성하고 한만큼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다.

04 활동을 통해 찾은 나의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보통 나는 대부분의 활동을 원래 친한 사람들과 했기에 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 하는지는 처음 알았다. 친구들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하던 말이 잘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을 앞에 두고 단답형식이 아니라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려니 말도 꼬이고 생각도 꼬인 것 같다. 나름 신선한 경험이긴 하나 그다지 또 겪고 싶지는 않은 기억인 것 같다.

05 자유 소감

여러 번 쓴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아는 사람 없이 이러한 외부활동을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내용과는 관계없이 매우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자체를 배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토론보다는 환경 관련 이슈를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베택테리언을 하면서도 내가 정확히 이걸 하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비록 토론을 실제로 할 주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주제로 축산업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며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육식을 하지 않는 것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몰라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모나미(남윤아 선생님)님과 토론회 참여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예린

0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연 토론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하면서 저희 팀의 주장을 더 잘 피력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찾고, 입론을 쓰고, 답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외부 강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터라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 내가 성장/변화한 점이 있다면?

토론실력은 물론이고 발표를 할 때조차도 제가 더 조리 있게 제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이유까지 덧붙여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 토론회가 마냥 토론실력만 키워주는 것이 아닌 발표실력과 팀원들과의 협동심 등을 키워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03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보니 음향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 분들이 저희의 토론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4 활동을 통해 찾은 나의 새로운 모습은?

제가 제 주장이나 주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 주장을 마음껏 피력하는 게 되게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05 자유 소감

여러모로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지만, 아쉽게도 팀원 분들과 잘 소통이 안 됐었던 것 같아 지금은 풀리긴 했으나 곱씹어 생각할수록 '이때 바로 오해를 풀었어야 했는데...'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야 찬찬히 되새기면서 어떤 오해가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 나중에서야 해결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 고칠 점을 알게 된 것 같아 저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이 토론회가 제게 준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찬이

0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식개선 우선 축의 팀원?들과 같이 뉴스 자료나 설문조사 등을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토론 내용을 정리해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02 내가 성장/변화한 점이 있다면?

토론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다양한 연령대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각자의 생각을 배울 수 있었다.

03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대부분 청소년 센터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쉬웠다

04 활동을 통해 찾은 나의 새로운 모습은?

조금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이런 점들을 조금씩 발전시킨다면 타인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05 자유소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알고 있는 부분이 꽤 적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여러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딜레마부터 많은 해결 노력까지 알 수 있어서 내 지식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본 경험이 없었지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지원했던 것이 매우 뿌듯하다.

조효빈

0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토론 전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입론과 질문 작성 등 많은 새로운 경험을 했던 이때가 지금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02 내가 성장/변화한 점이 있다면?

내가 변화한 점은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더 잘 안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페트병의 라벨을 뚫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엄마한테 넘겼었는데 이제는 라벨은 기본으로 페트병의 링까지 분리한 다음 분리수거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라스틱류에 플라스틱 빨대를 버리기 위해 빨대를 세척한 다음 모으는 습관도 생겼다.

03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토론이 끝나고 사후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쉬었는데, 이 때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하지 못해 아쉬웠다. 또한 카페에서 페트병을 쓰지 않기 위해 를 들고 가기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지 못해 아쉬웠다.

04 활동을 통해 찾은 나의 새로운 모습은?

활동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아주 못 했지만 하려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을 찾은 것 같다. 또한 준비해가지 못하면 즉석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신호를 보내는 나의 모습을 찾은 것 같다.

05 자유소감

환경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지 더 자세히 들여다 본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기쁘다. 솔직히 분리수거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패스트 패션, 탄소 문제, 축산업, 경제 발달 상황과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토론에 관해서는 토론은 무엇이고,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입론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

임하영

0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본 토론회 당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제 정하기, 토론 교육 듣기, 팀원들과 상의하며 입론 작성하기 등 많은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합쳐져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비해 간 반론으로 상대측의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었을 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02 내가 성장/변화한 점이 있다면?

공동체적 역량과 논리적 말하기/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및 우리 팀과 함께 상의하여 주제를 정하고 입론 근거를 세워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했는데, 비록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힘을 합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적 능력이 성장하였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토론 근거를 세우고 상대팀 근거의 허점을 찾는 과정에서 논리성이 향상되어, 토론 당일 논리적으로 반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3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입론/반론을 작성해야 하다 보니 개인일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경우와 조원별 참여도의 차이가 생겼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주제를 빠르게 확정하고 그 시간에 조원들과 입론근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추가적 시간을 덜 할애하고서도 활동을 무사히 진행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모두 훗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격을 수 있는 시행착오들이므로, 참여자 전원에게 유익한 경험이자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04 활동을 통해 찾은 나의 새로운 모습은?

'모나미(남윤아 선생님)'님이 제가 상대의 다소 날카로운 말에도 중심을 잘 잡고 차분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해주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며 항상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05 자유 소감

사실 토론회가 있는 당일 아침까지 입론 글을 읽으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느라 30분 정도밖에 못 잤었는데, 그만큼 우리 팀이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부듯했습니다. 물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만큼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청소년 숙의토론회가 앞으로 또 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께 토론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꼭 한 번쯤 시도해보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의 재미를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백가운

오픈테이블을 진행하게 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픈테이블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토론하는 과정과 실천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환경은 사실상 저희의 생각보다 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픈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밌었고 훌륭한 결과물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기에 오픈테이블을 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픈테이블을 접하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고 기획이기에 다음번에도 도전할 수 있다면 더욱 발전하고 또 함께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픈테이블에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을 경청하고 나누어 주신 모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다영

0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토론준비하면서 자료 조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02 내가 성장/변화한 점이 있다면?

타인과 소통할 때 필요한 나의 자세를 배웠다.

03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된 것이 아쉽다

04 자유 소감

내게 서툰 부분도 있고 각자만의 고충이 있어 결코 쉽지 않은 토론 준비였을 텐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모두에게 수고 많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고양시 청소년 시민,
함께 모여 환경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다.

모든 고양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줄 아는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정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나미(남윤아)

발행날 2021년 11월 어느 날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발행인 황세연

편집인 남윤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전화 031-995-4153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imyouth01>

홈페이지 <https://www.gcyf.or.kr/md/>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